

타이어 교체, 구입 시 알아두어야 할 상식!

자동차의 발 타이어. 타이어는 운전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바꾸거나 구입할 때도 꼼꼼하게 따져보아야 한다.

▶ 타이어 규격 체크

타이어를 구매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체크해야 할 부분은 역시나 '타이어 규격'이다. 타이어 규격이 달라지면 차량의 주행 성능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자신의 차량 규격에 적합한 타이어를 골라 장착해야 한다. 타이어 규격은 자동차에 사용되는 타이어의 종류, 크기, 정보 등을 알려주는 표식을 일컫는다.

타이어 규격 표시 방법은 타이어의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예를 들어, 승용 타이어 표기법은 '단면 폭/편평비, 래디알구조, 립(Rim)외경, 하중지수, 속도기호의 순으로 나타낸다. 가령 '235/55 ZR 17 103 W'라고 적혀있는 경우 '단면 폭은 235mm, 편평비는 55%, 래디알구조는 ZR, 립외경은 17인치, 하중지수 103, 속도기호 W'라는 의미이다.



'단면 폭은 지면과 맞닿는 면의 가로 폭을 의미한다. '편평비'는 타이어 단면의 폭에 대한 높이의 비율로, 과거에는 주로 100(높이와 폭이 같은 경우)이었지만 최근에는 70, 60, 50, 40 등으로 낮아지는 추세이다. 고성능 타이어일수록 단면 높이가 낮아지는 것이 특징이다.

'립 외경'은 휠의 지름과 타이어 내경을 뜻한다. 타이어가 들어가는 휠 하우스에는 약간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립의 외경보다 1~2인치 큰 타이어를 장착하는 것도 가능하다. 따라서 립 외경을 확인하면 차량에 장착할 수 있는 타이어의 최대 크기를 가늠할 수 있다.

▶ 제조일자 확인

오랜 기간 방치됐거나, 5년 이상 경과된 타이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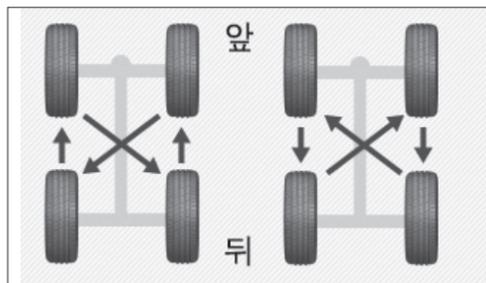
는 안전성이 떨어졌을 수 있다. 따라서 타이어를 구입할 때는 구입 시기로부터 1년 이내의 생상품인지 확인하는 게 좋다. 타이어의 제조일자는 타이어 사이드월에 표기돼 있는 DOT(Department Of Transportation) 넘버의 제일 마지막 4자리 숫자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이는 미국 운수국 안전규정에 따른 표현 방식으로, 세계 표준처럼 사용되고 있는 표현 방식이다.



DOT의 마지막 4자리 숫자 중 앞의 두 자리는 타이어가 몇 주 차에 생산된 것인지를 나타내고, 뒤의 두 자리는 타이어가 만들어진 연도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DOT 마지막 4자리 숫자가 '1018'일 경우 2018년도 10주 차에 생산된 제품이라는 의미이다.

▶ 타이어 위치 교환 가이드

타이어가 약간 마모된 것 같은데 새 타이어를 구입하기가 부담된다면, 타이어 위치 교환을 해준다. 적절한 타이어 위치 교환은 타이어의 수명을 늘릴 수 있다. 위치 교환 시기는 좌우 트레드의 홈 깊이가 많이 차이가 날 때로, 1만km정도 주행했을 때마다 바꿔주는 게 바람직하다.



만약 앞뒤 타이어와 좌우 타이어의 마모도에 차이가 있거나 타이어 안과 밖의 마모도에 차이가 있으면 위치를 바꿔준다. 또한 차종에 따라 타이어의 위치 교환 시기와 방법이 다르다. 전륜구동 차량은 앞바퀴를 같은 방향 뒤로 보내고 뒷바퀴를 대각선 앞으로 보내거나, 앞뒤 바퀴를 그대로 바꾼다. 후륜구동이나 4륜 구동 차량은 앞바퀴를 대각선 뒤로 보내고 뒷바퀴를 같은 방향 앞으로 보내거나 앞뒤 바퀴를 대각선으로 바꿔준다.

풍절음을 줄이려면

풍절음이란 창을 닫고 고속으로 주행할 때 '슈슈', '샤샤' 하는 비교적 주파수 높은 소리(500Hz-5kHz)로 들려오는 것을 말한다. 주행 속도나 풍향에 따라 변하기도 하는데 때로는 굉음에 가까운 소리를 내기도 한다.

자동차 풍절음의 원인은 차문에 부착된 고무몰딩이 헐거워졌기 때문이다.

▶ 풍절음을 줄이는 방법은?

1. 고무몰딩에 윤활제 도포

노후화 된 고무몰딩에 윤활제를 도포하면 풍절음을 줄이는데 효과적이다. 노후로 인해 딱딱해진 고무몰딩에 마른 천을 이용해 전용 윤활유를 얇게 발라준다. 가죽 윤활제나 WD가 효과적이다. 하지만 문 바깥쪽 고무몰딩의 경우 상태에 따라 교체하는 것이 좋다.

2. 윈드키퍼 시공

자동차 풍절음 차단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 바로 '윈드키퍼'로 문이 열리고 닫히는 부분에 전체적으로 소음을 차단해주는 몰딩을 시공해 벌어진 문틈을 막아 풍절음을 차단하는 것이다. 셀프 시공이 가능한 튜닝으로, 간단한 것 같지만 내부는 별집구조로 되어 있어 소음과 바람, 미세먼지 차단에서 효과적이다. 윈드키퍼는 차량 온도 유지에도 도움을 준다.

▶ 풍절음 외 주행 소음 줄이는 팁

풍절음 외에도 주행 중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불편한 경우가 있다. 차량 노후로 인해 엔진 자체 진동과 소음이 발생한다면 '보닛 후드 흡음재'를 통해 소음을 줄일 수 있다. 또 엔진 내부에 먼지와 이물질이 쌓이면 소음은 더욱 커진다. 따라서 엔진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는 엔진 내부 관리와 더불어 소음을 차단하는 흡음재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차량 내부로 들어오는 전체적인 소음을 차단하고자 할 때는 천정 엠보싱 작업을 하면 좋다. 힘은 들지만 셀프 시공이 가능하고, 복사열과 풍절음 차단에 도움을 주는 방법이다. 더불어 인테리어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천장 오염도 줄일 수 있다.

주행 중 발생하는 소음은 외부 환경뿐 아니라 운전습관과도 관련이 있다. 급출발, 급제동, 급선회할 때 트레드 노면이 미끄러지면서 소음을 만들게 되는데 이를 '스킬'이라고 한다. 스킬을 줄이기 위해서는 회전 구간에서 저속으로 주행하는 습관을 키우는 것이 좋다.

타이어 공기압이나 마모 상태에 따라라도 주행 중 소음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공기압과 마모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불어 공명음을 줄인 저소음 타이어를 사용해 타이어와 노면간 발생하는 소음을 줄인다면 쾌적한 주행 환경을 만들 수 있다.

좋은신문 알찬신문 '타운뉴스'에서 함께 일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개인의 작은 권리 하나도 소중하게 여기는 인간존중의 정신을 바탕으로 재미있고 유익한 기사와 한인들의 이민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를 신고 격조높은 기사와 광고만을 게재하는 '타운뉴스'와 함께 신문을 만들어 나갈 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광고영업직 0명**

제출서류 : 이력서 1부, 자기소개서 1부

E-mail: info@townnewsusa.com